


|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국토교통부 |                      | <b>보도설명자료</b>        |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| 배포일시                 | 2021.8.3.(화) / 총 3매(본문2)   |
| 담당<br>부서  | 국토교통부<br>도로투자지원과     | 담당자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이윤하, 주무관 조성원</li> <li>• ☎ (044) 201-3902, 3905</li> </ul> |
|   | 서울지방국토관리청<br>민자도로관리과 | 담당자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김재희, 주무관 최영진</li> <li>• ☎ (02) 2110-6820, 6834</li> </ul>          |
| 보도일시  |                    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 |

## 광명-서울고속도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,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머니투데이, '21.8.3 조간) >

◆ “남북협력 핵심노선” 정부, 공사강행 논란

- 광명-서울 고속도로 구간 중 온수터널 공사 관련, 지반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검토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자 주민 반발, 2년 만에 공개된 검토보고서엔 ‘지반 붕괴 위험’ 지적
- 전문가들 “상세한 정보 공개해 주민과 소통·설득해야”

□ 광명-서울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1축 지선 중 수원-광명 고속도로(16.4 개통)와 서울-문산고속도로(20.11 개통)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부 간선교통망의 핵심 구간으로서

- 향후 개통시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,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그간 터널 시공과 관련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안전성 검토를 완료\*하였으며, 적절한 보강 공법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
\* SH와 공동으로 3차례 안전성 검토('14.1, '16.4, '17.9), 지하안전검증단 운영('20.6~)

- 지하안전검증 결과 터널 통과구간은 지반상태가 대부분 연암 또는 경암으로 양호하였고, 터널 수직구 구간에 위치한 파쇄대의 경우 적절한 보강공법을 반영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.

**< 터널 안전성 강화 방안 >**

- (보강공법) 대구경 강관보강 그라우팅(180°, 12m), 강지보재(150×150mm), 팽창형 록볼트와 인버트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
- (지하수 용출 제어) 2중 차수막과 철로된 토류판을 적용하였으며, 차수막의 심도는 암반층 보다 7.0m 깊게 계획하여 지하수 유입을 최대한 차단
- (소음관리) 상반·하반 분할 굴착, 진동제어발파\* 및 기계굴착\*\* 적용으로 설계·시공 지침상 발파진동 최소 기준치인 0.3kine(cm/sec) 이하로 적용

\* 다이너마이트가 아닌 안전성과 진동 저감이 우수한 에멀전폭약 및 정밀폭약 사용

\*\* 굴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, 파쇄대 등 암질이 나쁜 구간 적용
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그간 항동지구 터널 관련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\*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속 소통해왔습니다.

-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설명회(13.4월)에 이어 노선검증 주민설명회(18.4~7월), 주민대표 간담회(18.8월), 지하안전성 검증을 위한 주민협의체(19.1~3월), 공사 착수를 위한 주민설명회(19.5~6월) 등을 시행하였으며,

- 이를 통해 터널심도를 대폭 낮추었고(37m→52m), 소음·진동·보행안전 관리(발파계획 변경, 등하교 시간 공사차량 운행 금지 등)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최근에도 터널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협의(21.5~7, 5차례)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

-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주민설명회 및 협의체 등을 지속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이윤하 사무관(☎ 044-201-3902),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 관리과 최영진 주무관(☎ 02-2110-6834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**

**광명-서울 민자고속도로 위치도**

